**‘시민참여 연극을 활용한 시민참여연구’ 방법론 워크숍(이론+실습)**

*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변화를 모색하는 연구를 하고 싶나요?
* 시민(당사자)의 성장과 참여없이 제도적-정책적 변화만으로 사회혁신을 시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지역사회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위 대답에 모두 ‘네’ 라고 답을 하셨다면, 당신은 이번 워크숍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연극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가치를 실제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번 워크숍 참여의 유일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018년 11월10일~11일에 열린 ‘시민참여형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의사소통 실습 워크숍’(<http://health.re.kr/?p=4866>) 이후 실제 각 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전 체득할 수 있도록 연습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워크숍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기반이 되는 이론부터 살펴보는 워크숍으로 준비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큰 틀 : 이론적 바탕 세미나(2회) + 연습 워크숍(3회)
* 목 적 : 시민참여 연극을 활용한 시민참여연구를 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참여자들끼리 가상의 주제를 설정하고 연습해보기.
* 대 상 : 시민참여 연극을 활용한 시민참여연구를 서로 실습해보고 싶은 사람 10명 내외
* 세부 일정 (안)
* 1차 모임
* 일시 : 2월16일(토) 14:00~18:00 (4시간)
* 장소 : 시민건강연구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6 2층)
* 주제 : 시민참여 연극을 활용한 ‘시민참여연구’란 무엇일까?

: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는 ‘시민참여 연극’과 ‘시민참여연구’에서 모두 이론적 바탕이 되고 있는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를 바탕으로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탐색해보자!

* 방법 :
1. 페다고지 관련 공유된 자료(50페이지 분량)를 각자 읽기(참가 신청 시 공유)
2. 공유된 자료를 읽고, 각자 느낀 점 등을 300자 이상 작성하여 구글드라이브(참가 신청 시 링크 공유)에 올려서 공유하기(2월14일까지)
3. 시민건강연구소에서 만나서 토론하기(2시간)
4. 국내 사례 공유(1시간) : ‘페다고지’를 평화 교육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사례
5. 추후 워크숍 일정 및 방법 상의하기(1시간)
* 문의 : 송현성, 010-2291-0823 (adrtree@hanmail.net)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adrtree@hanmail.net

: 제목 : [시민참여연구 워크숍 참여 신청] 성명, 연락처만 간단하게 작성하여 송부.

* 신청기간 : ~ 2월 11일(월)까지

\* 2차~5차에 대한 구체적인 워크숍 방안은 1차 모임 때 같이 상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논의를 위한 나머지 워크숍에 대한 계획(초안)이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2차 모임 주제 : 시민참여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시민 참여 연극’ 살펴보기
1. ‘시민 참여 연극’이란 무엇인가?

: Theatre for living(데이비드 다이아몬드 지음)에서 나타난 커뮤니티에 대한 관점, 포럼 연극

② 기존의 시민참여 방법(디자인씽킹-퍼실리테이션 워크숍)과 연극적 방법의 차이

: 원시적, 상징적 언어 사용(참고자료 : 연극 치료와 함께 걷다, 이효원 저)

: 생각과 움직임 사이의 연결관계(참고자료: 배우는 법을 배우기, 시어도어 다이먼 지음)

③ 연극적 방법이 건강 관련 시민참여연구에 가지는 의의

: 몸에 새겨진 불평등의 흔적 발견 및 표현

: 생물학적 뿌리내림 : 불평등한 사회 내에서 겪는 경험들이 몸속으로 들어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과정의 변화를 형상화한 개념 (참고자료 : 몸은 사회를 기록한다. p120~129. 시민건강연구소 지음)

* 시민참여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연극적 방법’ 디렉토리화 목표

* 3차 모임 주제 : “내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 이라는 가상의 '주제' 와 '대상'을 정하고 워크숍 실습(함께 만들어보기)
* 아파서 병원에 가본적이 있나요?
*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병원에 갔더니, 1분 진료 받아본 적 있나요?
* 내가 받은 치료가 정말 적정한 것인지 걱정해본 적이 있나요?
*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드는데 함께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가요?

① 몸 놀이

: 평소에 하지 않았던 몸동작을 할 수 있는 게임 및 운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내재 되어있던 억압을 인식하고, 깨뜨려서,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한 준비단계 (연극을 위한 몸과 마음 풀기 방법 적용)

: 참여자간 신뢰를 쌓아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안전한 분위기 조성하기

② 나의 몸에 새겨진 억압의 흔적을 발견하고 표현하기

: 시민(당사자)들이 병원에서 자신이 느꼈던 답답한 감정 혹은 경험했던 부조리한 상황을 상징적 몸 이미지로 표현하기

③ 표현된 몸 이미지를 바탕으로 상황극 만들어 보기. 그리고 이러한 상황극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연습하고 토론하기.

④ 워크숍에서 나왔던 시민(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리하기(근거이론 활용)

⑤ 연구자로서 시민(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intervention과 사회-환경적 시스템을 제안하기

* 4차, 5차 모임 주제 : 워크숍 참가자 각자 시민참여연구의 '주제' 와 '대상'을 정하여 연극적 방법을 활용한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 및 실습(각자 만들어보기)

-특정하고 명확하고 세부적인 주제(넓은 문제를 다루기 보다는 정말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